캄보디아, 불교정신으로 기업가 양성 인기

'비즈니스 삼마막가' 과정 화제
6개월 과정…1천명 이수 '인기'
불교 가르침에 경제활동 접목
저명 불자 기업가 교수진 나서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 기업가를 육성하는 '비즈니스 삼마막가' 프로그램의 수료증을 받는 캄보디아 기업가들. 사진출처=크메르 타임즈

불교정신으로 기업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비즈니스 삼마막가(Business Sammamagga)'가 캄보디아에서 화제다. 지난 8월 23일 캄보디아의 '크메르 타임즈'는 기업가 정신과 불교의 가르침이 성공적으로 융합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캄보디아 최고 국가경제 위원회(SNEC)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삼마막가'는 부처님의 바른길(Sammamagga)을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창출해 내는 기업가 정신과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삼마막가 측은 "많은 경제학자들과 기업가들이 지적하듯이, 전통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불교 가르침과 경제원칙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불교 가르침과 윤리가 기업가의 이익창출과 개인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될수 있음을 증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6개월 과정이다. 지난 6월 1차 과정의 첫 수료생들을 낸 이래, 최근 2차과정을 개강하면서 거의 2배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다. 삼마막가는 "이는 비즈니스, 혹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불교 가르침을 실행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을 반영한다"면서 "이 교육을 받은 기업가는 사업의 운영과 성장, 효율성과 같은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불법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화와 균형을 이해하며 양자의 조화를 맞출 수 있게 된다.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SNEC의 수석고문인 메이 깔리얀은 "캄보디아에서 출재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이나 관습을 따라 불교를 수행하지만 이것은 실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생활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학식과 수행을 갖춘 전통 불교수행자들과 경험이 많고 저명한 기업가들이 함께 검토하고 준비한 강의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다"고 여타의 다른 불교경제 교육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깔리얀은 "단기참가자를 포함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최소 1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프놈펜 근교에 설립된 교육관에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명상 시간을 가진다. 교육은 실제 불교를 기반으로 사업에 성공했거나, 불교적 사업원리에 밝은 현직 기업가들이 진행한다.

지난 6월 1차 프로그램을 수료한 한 사업가는 "부처님은 우리 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과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셨고 교육에서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 역시 부처님께서 재가자들에게 가르치신 방법"이라고 교육 성과를 밝혔다.

삼마막가 측은 "1차 수료생들의 성공담들이 퍼지며 2차 등록정원이 초과하면서 벌써 3차 등록 예약도 거의 다 채워졌다"고 전했다. 삼마막가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범위로 수업과 훈련의 수는 증가하지만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 기업가의 수는 20명으로 유지될 것이다. 참가자는 대부분 농기계, 부동산, 환전, 수출입 등 대규모 사업주들이다"고 전했다.

日 외국인 스님, 수목장으로 도량 '부흥'

종교 불문…반려견 묘도 가능
관광 · 기업 위한 좌선 강의도


새롭게 조영된 수목장 부지를 소개하는 지지츠 스님. 사진출처=카나가와 신문

저출산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신도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일본 불교계. 외국인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한 고찰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찰을 경영하며 도량의 부흥을 이뤄가고 있어 화제다. 지난 8월 22일 일본의 '카나가와 신문'은 새롭게 부흥하는 고찰 간슈지(願修寺)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카나가와현 오다하라(小田原)시에 소재한 간슈지는 15세기 초 건립된 임제종 사찰이다. 2016년 주지로 부임한 이와야마 레오 지지츠 스님은 "부임 당시 등록된 신도가 단 2가구로 경내외의 여러 시설이 모두 노후화, 황폐화돼있었다. 수입은커녕 적자 상태로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지지츠 스님은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을 이용해 2개월간 일본의 선사에서 단기수행을 체험한 것이 불문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다. 스님은 학인생활을 마칠 무렵 간슈지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고, 주변의 만류에도 사찰에 부임을 결정했다.

부임 후 스님은 2020년, 기업연수에 좌선을 도입한 강의를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사찰 근처의 오다하라성(小田原城) 관광객들을 위한 좌선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중 교계 안팎으로 주목받는 것은 수목장 도입이다.

경내 부지를 대형정원으로 꾸미고, 종교를 불문하고 반려동물도 함께 잠들 수 있는 수목장 부지를 개설했다. 스님은 "극락정토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에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묘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간슈지 측은 이미 개설된 수목장 묘역의 80구획이 모두 예약됐다고 전했다. 수목장의 경우 특정 묘역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간슈지는 최근 남은 묘역과 경내의 여유부지를 포함해 약 300평방미터를 정원과 수목장부지로 개장했다. 현재는 법당도 재건축 중이며, 내봄에는 임대아파트를 병설한 새로운 사찰로 거듭난다. 아파트를 병설하는 것도 스님의 새로운 도전이다. 전통적인 사찰경영의 틀을 바꾸고 있는 외국인 주지스님의 도전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 황무지서 '포교 꽃' 피운 세계 최북단 사찰

러시아 닷산 다쉬 노르불린 사원
포교당서 지역문화 중심지 우뚝


세계 최북단 사찰인 닷산 다쉬 노르불린 전경.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불교 황무지와 다름없던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8년째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세계 최북단 사찰 '닷산 다쉬 노르불린'(Datsan Dashi Norbulin)이 화제다.

불교 관련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는 8월 24일 지역 포교당으로서 역할을 넘어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 중인 닷산 다쉬 노르불린을 조명했다.

닷산 다쉬노르불린은 러시아의 극동연방관구 중 이른바 '야쿠티아'로 알려진 사하 공화국에 지어진 사찰이다. 사하 공화국은 극동연방관구에서도 가장 큰 연방 주체로 북반구에서 가장 추운 극한 기후 지역으로 꼽힌다. 소수민족인 야쿠트족(Yakuts) 50%, 러시아인 37.8%, 또 다른 소수민족인 부랴트족 0.8% 등으로 구성됐다.

이 지역에는 약 7000명의 불교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약 15년 전만해도 불교 사찰은 커녕 수행 공간조차 없었다.

이에 사하 공화국에 거주하는 부랴트족 공동체는 1998년 부랴티아 공화국에 위치한 이볼긴스키 닷산(Ivolginsky Datsan, 러시아 불교전통승가단체)에게 라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볼긴스키 닷산은 다쉬 초인콜린(Dashi Choinkhorlin) 불교대학을 졸업한 예셰 단다르 라마를 사하 공화국으로 보냈다.

단다르 라마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연꽃 불교 공동체'라는 종교 단체를 설립하고 2009년 사찰 건립에 착수했다. 같은 해 공화국의 중심부에서 약 12km 떨어진 소나무 숲에 터를 정하고 공사가 시작됐다. 사찰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전세계 불교도들의 기부가 줄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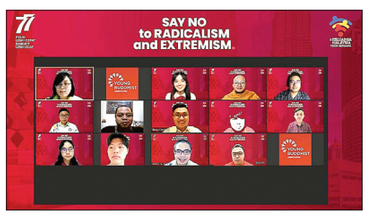
사찰은 5년 후인 2014년 10월 2일 봉헌식을 갖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현재 닷산 다쉬 노르불린은 불교 사찰일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언어를 가르치고 전시회를 여는 등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극동연방관구(FEFD)는 러시아의 8개 연방관구 중 가장 면적이 크고 인구는 적은 지역이다. 극동연방관구에는 많은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데, 약 3.3%가 불교도로 알려진다. 특히 극동연방관구의 11개 연방 주체 중 부랴티아 공화국, 자바이칼 변강주, 사하 공화국 등은 부랴트족에 의해 발전된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중심지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인니 · 말레이 불자들, 극단주의 해결 '합심'

'관용' 주제 온라인 포럼 개최
"중도는 갈등 해결 최선 방법"



급단주의 위험성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청년불교협회 회원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청년 불자들이 '혐오'와 '극단주의'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부디스트도어의 8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각 청년불교협회는 급진주의와 극단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보다 조화롭고 관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8월 17일 '제77회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기념 온라인 종교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에는 인도네시아의 불교 활동가와 이슬람 종교인 등이 참석, 종교 간 화합과 관용에 대해 연설했다.

인도네시아 청년불교협회 소속 빌리 루키토 조스완토는 "만일 우리가 침묵하면서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혐오' 문제를 무시한다면 급진적이고 극단주의적인 요소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급진주의와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승려 반테 디라푼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사랑과 연민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생각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라. SNS에 내 손가락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항상 경계하라"라고 역설했다.

또 말레이시아 청년불교협회 사무총장 에오 시앙 옌은 "부처님 가르침 중 '중도'는 극단주의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최선의 방법"이라며 "너무 극단적이지도, 너무 수동적이지도 않은 중도의 길이 극단주의와 급진주의에 대처하는 법"이라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